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1

2018 | Vol. 551

자연의 보고, 구시로(自然の宝庫, 釧路)
Photo : KIM SUK EUN_홋카이도, 2016 한일포토콘테스트 JAL상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신년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께서도 건강하게 새해를 맞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한일본대사로 부임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은, 제가 재작년 말 부산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상에 대한 대응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5월로 앞당겨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일한 양국 관계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에 가진 전화정상회담 이후, 특사의 상호 파견 및 거듭된 정상·외상회담을 통해 고위급에서 빈번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일한의 경제 관계로 눈을 돌리면, 9월의 일한경제인회의와 10월의 경단련·전경련 정상 간담회를 통해, 고용문제와 4차 산업혁명, 제3국에서의 협업 등,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은 방일 한국인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쌍방의 방문객 수 합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재작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에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과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순천 JAPAN WEEK'를 비롯해 수많은 교류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모든 행사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착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부임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 지향,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일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첫째, 일한 관계가 지역 및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관계가 되도록 협력과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 둘째, 문화·인적 교류, 지방 교류, 스포츠 교류 등 양국 국민 간의 다양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 셋째, 경제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 그리고, 넷째, 한국에 체재하는 일본 국민에 대한 지원을 빈틈없이 실시할 것. 이상의 4가지 목표입니다. 이들 4가지 목표를 올해도 더욱 흔들림 없이 실천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되고, 2020년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으로 이어지는 일한의 올림픽·패럴림픽 릴레이 개최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작년 이상으로 활성화해, 일한 관계를 착실히 진전시켜 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주한일본대사관 직원 일동은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일본의 설풍경전 &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작품전

새해맞이 첫 문화행사인 '2018 신년일본문화소개전'으로 '일본의 설풍경전 &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작품전'이 개최된다. '일본의 설풍경전'에서는 전통의상인 기모노와 설음식인 오세치 요리 모형, 각종 설 장식과 소품을 통해 일본의 설풍경을 소개한다. 또한 전통완구체험, 12간지 그림의 에마에 소원 적어 걸기, 일본 전통 절구와 떡메치기 체험 코너도 마련된다.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작품전'에서는 일본의 다카라즈카시(宝塚市) 수공예협회 회원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한 다채롭고 아름다운 작품이 전시되며, 협회 회원의 지도로 수공예 워크숍도 개최된다. 이 밖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수공예 워크숍, 일본차 워크숍, 초등학교 일본문화체험교실의 자세한 참가 방법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www.kr.emb-japan.go.jp>

일시 1월 10일(수)~20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주최 및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협력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문의 02-765-3011(120, 123) www.kr.emb-japan.go.jp



일본의 설풍경전

일시 1월 10일(수)~20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작품전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회원들이 일본의 설과 다가를 봄을 테마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한다. 가족공예, 페인트 데코레이션, 패치워크, 와시인형, 스테인드글래스, 목공예, 천공예, 플라워보틀, 염직물, 도예 등 다채롭고 아름다운 공예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일시 1월 10일(수)~20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일본차(日本茶) 워크숍, 어서오세요! 일본차의 세계로

현재 한국에서 일본차 대사로 활동 중인 오가타 준코(尾形純子) 씨와 함께 일본차의 매력을 알아본다.



일시 1월 18일(목) 14:30분~16: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예약 24명. 1월 8일(월)~15일(월)까지 이메일 신청. 선착순 마감.



초등학교 일본문화체험교실

일본의 토픽 동영상 관람 및 일본의 전통연을 만들어 본다.

일시 1월 12일(금), 13일(토), 15일(월), 16일(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예약 각 회당 20명, 1월 4일(목)~각 체험일 2일 전까지 이메일 신청. 선착순 마감.

수공예 워크숍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회원의 지도로 ①그리자이유 상자 만들기, ②펜케이스 만들기, ③태슬 목걸이 만들기, ④플라워보틀 만들기, ⑤트라이앵글 라이트, ⑥스테인드글래스 화장거울 만들기, ⑦와시인형 만들기, ⑧태슬 장식 파우치 만들기 등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워크숍이 진행된다.

일시 1월 10일(수), 11일(목), 19일(금), 20일(토)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예약 1월 3일(수)부터 각 워크숍 2일 전까지 이메일 신청. 선착순 마감.





‘영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

이지영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 2017’의 일환으로 주한일본대사관이 선발한 한국 고등학생 10명(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화성고등학교 학생 각 3명과 인솔교사 1명)이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본선 참가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는 아시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영화제로서 오늘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영상 제작을 통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선을 통과한 한국 대표 3팀은 2017년 11월 25일(토)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기타미시(北見市)에서 개최되는 본선 대회에 초청되었다.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일본 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하늘을 바라보며 두근거리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일본 기타미시에서 ‘학교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가 열렸는데, 운 좋게도 우리 영화가 본선에 진출하며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6박 7일은 2017년 한해 가장 뜻깊고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JENESYS 2017’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의 기타미시와 도쿄를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과 함께 각 지역 고유의 특징을 느낄 수 있었다. 기타미시에서 영화제와 관련된 교류회를 시작으로 유빙체험, 컬링체험, 고등학교를 방문했고, 도쿄에서는 기모노 입기, 센소지 견학, 도쿄



스카이트리 견학, 가나가와 현립 야에이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각 지역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을 들자면 기타미시에서는 아시아 청소년과 만났던 교류회와 각 나라에서 출품된 영화를 접할 수 있었던 영화제였다.

둘째 날에는 아시아 각지의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화를 감상했는데, 창의적인 구성과 독특한 표현력을 가미한 탄탄한 작품들이 놀라웠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 오히려 작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되면서, 온전한 나의 주관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셋째 날에는 본선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 학생들과 함께 교류회를 가졌다. 서로 소통하려 노력하면서 연락처와 선물을 주고 받는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고 특별했었다. 본선 대회에서 수상은 못했지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 의미있었다.

다음날부터 도쿄 일정이 이어졌다. 일본 고유의 전통 옷인 기모노 체험도 하고 맛있는 현지 음식도 먹으며, 쇼핑센터 시찰, 도쿄 스카이트리를 방문했다. 도쿄는 기타미시와는 다른 매력을 가졌는데, 특히 스카이트리에서 내려다본 도쿄의 전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카이트리는 지상디지털 방송의 송신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그곳에서 바라본 도쿄 시내는 마치 우주에 별을 박아둔 것처럼 반짝이며 장관이었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날에는 가나가와 현립 야에이고등학교를 방문

해서, 일본 학생들의 교육 과정과 수업 방식 등을 살펴봤는데, 일본은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중시하는 듯싶었다. 우리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학생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생각보다 한국에 관심이 많았다.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나로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지 못했던 것을 느끼며,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

일본을 방문하고 2주가 지났지만, 일본에서 경험했던 순간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만큼 값지고 유익한 활동이었는데,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JENESYS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도 연락을 하는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축복이었다. 또한 두 곳의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일본의 교육방식을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을 유익한 경험이었다. 일본 문화체험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JENESYS 2017 프로그램을 통해 학창시절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한가지 더 늘어났다. 앞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시야를 더욱 넓히기 위해, 국제교류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을 기울이며 더 나은 내가 될 것을 꿈꿔 본다.



나리타 기온마쓰리(成田祇園祭)

한국의 2개 우호도시와 교류 나리타시와 인천광역시 중구, 전라북도 정읍시

나리타시, 물과 초록과 나리타산 그리고 국제공항

나리타시(成田市)는 면적 약 214km², 인구 약 13만 3천 명의 치바현(千葉県) 북부 중앙에 위치한 중핵도시다. 북으로는 도도히 흐르는 반도타로(坂東太郎)·도네(利根)강을 사이에 두고 이바라키현(茨城県)에 접해 있고, 서로는 치바현립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인바누마(印旛沼)호수, 동으로는 가토리시(香取市)와 접해 있다. 나리타시 서쪽으로는 네코나(根名)강, 동쪽으로는 오스카(大須賀)강이 흐르며, 이를 에워싸듯이 광대한 논과 비옥한 호쿠소(北総) 대지의 밭이 펼쳐져 있다. 북부에서 동부에 걸친 구릉지에는 공업 단지와 골프장이 흩어져 있고, 남으로는 일본 하늘의 관문인 나리타 국제공항이 있다.

또 시의 중심부인 나리타 지구에는 2018년에 창건 1080 주년을 맞는 나리타산 신쇼지(成田山 新勝寺)가 있는데, 몬젠마치, 즉 절 앞에 형성된 마을이 번성해 매년 많은 참배객들로 붐빈다. 시내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사찰이 산재해 있으며, 풍부한 물과 초록으로 둘러싸인 전통적인 모습과 국제적인 모습이 어우러진 도시다.

정(靜)과 동(動)

나리타시는 물과 녹음이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정’과 ‘동’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정적인 얼굴은 연간 수많은 참배객이 모이는 나리타산이다. 한편, 동적인 얼굴은 일본 하늘의 관문인 나리타 국제공항이다.



나리타산 신소지(成田山新勝寺)

나리타시의 명품 · 특산물

오래 전부터 나리타산 신소지의 몬젠마치로 번성했던 나리타. 나리타산 참배 길에서는 에도(江戸) 시대부터 참배객을 대접하기 위해 장어를 제공해 왔다. 지금도 역에서부터 약 800m에 이르는 참배 길을 따라 60여개의 장어 요리점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참배 선물로 예전부터 알려진 양갱. 특히 밤 양갱은 나리타산 신소지의 사찰 음식인 정진 요리의 ‘구리칸(栗羹)’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했다고 한다. 또 나라시가 위치



한 호쿠소 대지는 일본에서도 손 꼽히는 팡콩 산지이자, 달고 맛있는 고구마와 크고 노란 크림 수박의 산지이기도 하다. 나리타의 명품 · 특산물을 꼭 맛보시기 바란다.

두 곳의 우호도시

나리타시는 한국에 2곳의 우호도시가 있다.

첫 번째는 한국 북부 서해안의 교통, 문화, 산업의 중심지인 인천 서부에 위치해, 수도 서울의 하늘과 바다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다.

1996년 나리타 국제공항 및 나리타시 행정 시찰단이 나리타시를 방문한 이래, 행정교류와 시민 축구팀의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교류가 추진되었는데, 1998년 9월 21일, 양 시의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교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우호교류 추진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지금도 양 시의 축구협회가 중심이 되어 격년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와 나리타시가 서로 번갈아 가며 축구교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와는 2018년에 우호도시 결연 20주년을 맞이한다.



일한 민간친선축구대회(인천광역시 중구)

두 번째 우호도시는 서울에서 KTX로 약 2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한 전라북도 정읍시다.

정읍시는 나리타시와 마찬가지로 역사 깊은 사찰 내장사가 있고, 이 지역에는 벚꽃과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이 있다.

1998년 정읍시에서 나리타시로 시찰단이 방문했다. 2000년부터는 정읍시 중학생을 포함한 우호 방문단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래 중학생이 있는 나리타 시내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나리타의 중학생들과 교류 및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앞으로도 양 시의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강화하고, 교류를 위해 서로가 노력할 것을 약속한 '우호교류 추진협의 합의서'를 2002년 1월 29일 체결했다. 지금도 매년 양 시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상호 방문하여 홈스테이 교류를 하며 서로의 우정을 키우고 있다.

양 시는 2017년에 우호도시 체결 15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해 나리타시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양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한일 문화 교류전'을 2017년 9월 26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정읍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하니, 많은 관람을 바란다.

맺음말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와 전라남도 정읍시, 각각의 우호도시와 스포츠 교류 및 홈스테이 등의 청소년 교류를 통해 쌓아 온 교류 실적과 서로의 신뢰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상호 이해와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곳의 우호도시와 교류를 지속해 갈 생각이다.

[문의]

☎ 286-8585 일본국 치바현 나리타시 하나사키정 760번지

나리타시청 시티프로모션부 문화국제과

E-mail bunkoku@city.narita.chiba.jp

HP <http://www.city.narita.chiba.jp/>

(집필: 나리타시, 협력: CLAIR, Seoul)



우호도시 체결 15주년 기념사업 '한일문화교류전'(전라북도 정읍시)



중고생 우호방문단사업(전라북도 정읍시)

이미숙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인터뷰 내 인생에 담긴 일본 그리고 스포츠 교류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교류 추진에 기여한 공적으로 2017년도 외무대신표창을 수상하셨는데, 오랫동안 양국의 스포츠 교류를 추진해 온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 일본에 간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한국청소년대표로서 청소년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치기현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시험 등으로 일본을 오갔지만, 일본어를 못하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 때부터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고, 많은 일본인 배드민턴 선수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졸업 후, 일본체육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으로 쓰쿠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환경과 인연을 만나, 일본의 도움을 받은 입장이라, 그 보답으로 제 주변 분들께 일본의 긍정적인 면을 전하려 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교류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스포츠 관련 6개 대학(가노야 체육대학, 리쓰메이칸 대학, 덴리 대학, 준텐도 대학, 와세다 대학(스포츠과학부), 일본체육대학)과 한국체대의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이는 스포츠 교류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간의 학술교류나 스포츠를 하지 않는 학생 간의 문화교



日本と韓国のスポーツ交流の推進にご尽力された功績により、平成29年度外務大臣表彰を受賞されましたが、長年、両国のスポーツ交流を推進してこれたきっかけは何ですか。

初めて日本に行ったのは高校3年生の時でしたが、青少年バドミントン大会で韓国青少年代表として栃木県を訪れました。その後も試合などで何度も日本を行き来しましたが、日本語を話せないのが非常にもったいないと思いました。それから日本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り、日本語を勉強して多くの日本人のバドミントン選手と友達になりました。その交流は韓国体育大学に入ってからもしばらく続きました。卒業後は、日本体育大学大学院で修士号を取得した後、文部科学省の国費留学生に合格し、筑波大学で博士号を取得しました。私は非常に良い環境や良縁に恵まれ、日本から恩を受けた立場でもあります。その恩返しとして自分の周りの人々に日本のポジティブな面を伝えたいと思ったことが、自然に日韓のスポーツ交流の推進につながっ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特に、日本のスポーツ関連6大学(鹿屋体育大学, 立命館大学, 天理大学, 順天堂大学, 早稲田大学(スポーツ科学部), 日本体育大学)と韓国体育大学を姉妹協定で結ぶ活動に尽力してきました。これは、スポーツ交流だけでなく、大学教授同士の学術交流やスポーツをやっていない学生同士の文化交流など、より幅広く日韓が交流できるようにしたいと思ったからです。



9월 20일, 일본대사관에서 개최된 2017년도 외무대신표창 전달식

류 등 좀더 폭넓게 일본과 한국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많은 스포츠 관련 대학과 협정을 맺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계신데, 교류를 통해 얻은 것이나 이와 관련된 인상적인 에피소드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야마현 교육위원회와 모교인 한국체육대학교가 협정을 맺고, 도야마현의 여러 종목 선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방문해서 공동 연습을 하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10년간 일본에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교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의 스포츠 관계자를 만나는 일은 매우 힘들었지만, 덕분에 폭넓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 서울시체육회 이사 등을 맡으며, 스포츠와 관련된 일에 몸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도야마현 스포츠 명예대사로서 활동하는 등 일본 스포츠계의 강력한 라인을 통해, 양국의 스포츠 교류에 공헌해온 것을 주변 분들이 높이 평가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무대신표창을 수상한 것이 더욱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또, 일본의 스포츠 교육 환경은 스포츠에만 집중하는 한국과는 달리, 학업도 착실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그 차이점을 알게 된 한국 학생들이,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인식을 바꾸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역시 교류 활동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3 때, 한국청소년 대표로 도치기현을 방문했을 당시 모습(앞 우측 두 번째가 이미숙 교수, 뒤 우측 세 번째가 박주봉 감독)

これまで日本の多くのスポーツ関連大学と協定を結び、積極的に交流されていますが、交流を通じて得られたことや、印象的なエピソードを紹介してください。

富山県教育委員会と母校の韓国体育大学は協定を結んでおり、富山県の様々な種目の選手が韓国体育大学を訪れて共同練習を行うなど、交流を行いました。私は約10年間日本にいないながら、それに関するほぼ全ての交流行事をアレンジしました。バドミントンだけでなく、様々な種目のスポーツ関係者と接しながら仕事するのは非常に変でしたが、そのおかげで幅広い人間関係を築くことができました。現在も大韓体育会女性体育委員会委員, ソウル市体育会理事を務めるなど, スポーツに関する仕事に携わっています。それが可能だったのは, 富山県のスポーツ名誉大使として活動するなど, 日本のスポーツ界に強いパイプを持ち, 日韓のスポーツ交流にも貢献したことを周囲の方々が高く評価してくださったおかげだと思います。そのため, 外務大臣表彰を受賞したことは非常に光栄でした。また, 日本のスポーツ教育の環境は, スポーツだけに集中する韓国とは異なり, スポーツだけでなく学業も並行してしっかり行います。日本の学生との交流を通じてその違いを知った韓国の学生たちが, 今からでも勉強を始めたいと認識が変わる様子も目にしますが, これも交流活動の成果だと思います。

様々な競技における日韓のスポーツ交流がもたらした効果や影響についてどの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

私の経験では, スポーツを通じて日本人と実際に交流を行うことにより, 日本が好きになった人が非常に多かったです。その

여러 경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교류가 가져다 준 효과와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경험상, 스포츠를 통해 일본인과 교류하며, 일본을 좋아하게 된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는 상대국에 호감을 갖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과 아들도 일본에서 유학했고, 내년에는 일본인 며느리를 맞게 되는 등 일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도 일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본을 빼놓고는 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랜 시간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느낀 '일본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일본의 관계는 4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느낀 일본의 매력은 한마디로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매력을 느낀다기보다, 이를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있나요. 또 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본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스포츠나 학생 교류는 충분히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스포츠와 관련 없는 젊은 일반인이나 저 같은 실버 세대에게 일본의 긍정적인 부분을 전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본의 좋은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실버 세대까지 폭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한 양국의 가교가 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ような点で、スポーツは相手国に好感を持つ上で大きな役割を果たす効果があると思います。また、その効果はその人だけに留まらず、その家族や周辺の人々にまで日本や韓国に対する良いイメージが広がると思います。私がその代表例であると言えるでしょう。夫も息子も日本に留学しましたし、来年は日本人の嫁を迎えるなど、仕事面だけでなく、生活面においても日本と密接に繋がっています。おそらく日本なしで私の人生は語れないと言えるほどです。

長年、深く日本と関わってきた先生から見て、「日本の魅力」は何だと思えますか。

私と日本との関係は40年近くになりますので、私が感じる日本の魅力は、一言では語れないくらい深いものがあります。今では私自身が日本に魅力を感じるというよりは、それを知らない人々に伝える立場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今後、さらに挑戦したい仕事や目標はありますか。また、読者へのメッセージをお願いします。

全てのことは人間が行いますので、とにかく人間関係が最も大事だと思います。韓国と日本の中でポジティブな人間関係が生まれるようにするためには、日本に対して良いイメージを持つ人を増やす必要があります。これまで行ったスポーツや学生に関する交流は、既に十分根付いていると思います。今後は、スポーツとは関係ない一般の若者や、私のようなシルバー世代にも日本のポジティブな部分を伝え、それを通じて彼らが成長できるよう、リードする人になりたいです。私が持っている情報を最大限活用し、日本の良さを伝えていきたいです。若者世代からシルバー世代まで、幅広い範囲の方々が日本について学べるような環境を作り、日韓の架け橋になれば幸いです。



‘창작 스시’의 대가, 마츠하타 타미노부 셰프 인터뷰

기존 상식을 깨고 20여 가지 토핑과 소스를 이용해서 제철 재료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세계의 초밥을 구현한 ‘창작 스시’의 대가 마츠하타 타미노부(松島民夫) 셰프가 지난 12월 22일(금), 나카무라아카데미가 주최하는 강습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신년호에서는 마츠하타 셰프의 인터뷰와 함께 강습회 모습 등을 소개한다.

올해로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다츠미 스시’의 오토로서 50년 이상 초밥을 만들고 계신데, 일본 요리 가운데 특별히 초밥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일본요리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카타의 료테이와 호텔에서 요리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다츠미 스시’의 원점이기도 한 ‘다츠미(翼) 스시’라는 초밥집에서 일손 부족 등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우니, 이름을 남기는 조건으로 가게를 물려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츠미(翼)의 한자를 히라가나로 바꿔 ‘다츠미(たつみ) 스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본 요리 중에서 초밥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후쿠오카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큰 어시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어부와 시장 상인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냉동 생선으로 요리하면, 제철 생선을 꿰뚫고 있는 어부와 상인들은 제철이 아닌 냉동 생선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식 생선으로 만든 요리도 거부하기 일쑤였죠. 이런 상황에서도 꾀없이 저만의 초밥을 열심히 만들어 나간 결과, 지금은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창작 스시’의 대가라 불릴 정도로 새로운 세계의 초밥을 만드셨는데, 이런 스타일의 초밥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때 일본에서는 요리 경연 방송이 유행하여 스튜디오에서 요리하는 문화가 널리 퍼졌습니다. 이 시기에 생선, 특히 날 생선을 먹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초밥을 만드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을 준비하면서 왜 생선이 먹기 어려운지 직접 질문해 보고, 어떻게 하면 초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수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 지금의 ‘창작 스시’가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초밥을 드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 생선을 가볍게 익히거나, 간장이 아닌 토핑이나 소스를 곁들여 드시도록 하는 등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초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초밥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초밥 장인을 꿈꾸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초밥 재료인 ‘네타(ネタ)’가 신선한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숙성을 해야 더 맛있는 생선도 있지만, 제철 생선을 신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월은 복어가 가장 맛있는 시기네요. 또 초밥용 밥인 ‘샤리(シャリ)’ 역시 중요합니다. 사람 체온 정도의 샤리를 적당한 세기로 쥐어야 하는데, 저는 샤리를 쥐어 그릇에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드럽게 무너지는 정도로 만드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래야 입안에서도 맛있게 무너



저 내려 네타와 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샤리'와 '네타'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샤리'라도 그 양이 지나치면 '네타'의 신선함이 죽어버립니다. 샤리의 양은 네타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양을 달리해야 하는데, 흰 살 생선은 약 10g이 가장 적당하며, 5g만 많아져도 맛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 밖에 '다츠미 스시'에서는, 초밥과 함께 먹는 드레싱은 오일을 사용하되, 매실 과육 등의 일본 식재료를 넣어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가게에서 사용하는 그릇도 일본 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요리 가운데 '스시'는 전 세계인은 물론 한국인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일본요리를 대결하는 여러 콘텐츠가 매스컴을 통해 쏟아져 나온 시기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대표적인 일본요리 '스시'가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그때 일반적인 초밥으로는 요리 경연의 미션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거듭한 것이 '창작 스시'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가게를 경영하는 데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양성하는 것이 지금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또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등 사회가 급변하고 있지만, 일본 요리 특히 '스시 문화'에서 로봇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시 문화'에 속한 사람은 매일처럼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드시는 분을 염두에 두고 요리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리가 점점 진화하게 됩니다. 저 또한 드시는 분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요리에 매진하여, 나날이 진화해 가고 싶습니다.

[초밥용 밥(しゃり)]

재료 : 쌀(1.5kg), 다시마 물(또는 물) 1.8kg

초밥초 : 식초(180g), 설탕(162g), 소금(54g), 미림(4g)

만드는 법 :

- ① 분량의 물과 쌀을 넣고 밥을 짓는다.
- ② 초밥초 분량의 조미료를 냄비에 섞어 낮은 온도에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가열한다.
- ③ 다 지어진 밥을 스시오케에 옮겨 담고 초밥초를 골고루 뿌린다.
- ④ 초밥초가 밥에 잘 스며들도록 크게 저어준다.
- ⑤ 초밥초가 스며들면 스시오케에 넓게 펼친 후 부채로 사람 체온까지 식힌다.



‘하치조 블루’가 아름다운 하치조섬



오사가 전망대. 하치조섬을 대표하는 절경으로 원추형의 하치조후지산과 무인도 하치조코섬이 보인다.

하치조(八丈)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진 인구 7,613명, 면적 69.11km²의 표주박 모양의 섬이다. 도쿄도(東京都)에 있는 11개 유인도 중 하나로, 초록이 아름다운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쿠로시오(黒潮) 해류가 흐르는 하치조섬의 바다는 ‘하치조 블루’라고 불리는데, 투명도가 높은 아름다운 청색이 특징으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 기후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해양성 기후를 띠며, 연평균 기온은 17.8℃로 고온 다습하고 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네다 공항과 하치조섬을 잇는 비행기가 매일 3편 취항하고 있다.

하네다 공항과 하치조섬을 잇는 비행기가 매일 3편 취항하고 있으며, 약 55분이면 닿는다. 또 다케시바(竹芝) 여객터미널에서 대형 선박이 매일 출항하고 있으며, 미야케(三宅)섬, 미쿠라(御蔵)섬을 경유해 약 10시간 20분이면 하치조섬에 도착한다.

봄의 도래를 알리는 ‘프리지어 축제 · 프리지어 인피오라타(Infiolata)’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하치조섬을 대표하는 이벤트 ‘프리지어 축제’가 개최된다. 개최 장소인 하치조후지(八丈富士)산 기슭에는 약 35만주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프리지어 꽃이 피어, 방문객을 맞는다.

이 축제에서는 프리지어 꽃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을 찾아 준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꽃 따기 체험과 꽃 놀이 워크숍, 하치조섬의 특산품을 사용한 특설 카페 즉, 기하치조(黄八丈, 노란 바탕에 줄무늬, 체크무늬 등을 넣은 비단)에서 기모노 입어 보기 체험과 하치조(八丈) 북 연주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지어 축제 마지막 날에 프리지어 인피오라



하치조후지산 기슭에 35만 송이의 프리지어가 피어있다.

타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인피오라타는 이탈리아어로 ‘꽃을 바닥에 깎는다’는 뜻으로, 도로와 광장에 꽃잎 등으로 그림을 그려 감상에 도움을 주는 이벤트인데,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힌트로 ‘프리지어 인피오라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프리지어 꽃잎을 용단처럼 깔아 거대한 그림을 그려낸다. 프리지어 향기가 감도는 가운데, 꽃잎으로 색을 입은 완성품은 압권이다.

심신이 치유되는 온천

하치조섬의 매력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온천이다. 이곳이 온천 섬인 것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는데, 족욕탕을 포함해 7곳의 온천이 존재하며 각각에 특징이 있다.

우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탕(秘湯) ‘우라미가타키 온천(裏見ヶ滝温泉)’은, 자연의 정취가 넘치는 계곡에 자리해 있으며, 명품 폭포인 ‘우라미가타키’를 감상한 후, 바로 들어



프리지어 인피오라타

갈 수 있는 노천탕으로 남녀가 함께 수영복을 입고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온천의 수증기와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녹음의 향기에 둘러싸인 시간은 바로 치유의 시간이다. 대조적인, 온천을 이용한 보건·보양시설, 즉 쿼어하우스 풍의 온천은 ‘블루 포트·스파 더 BOON’이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즐기는 자쿠지(Jacuzzi) 욕조의 제트 수류와 벵샤워가 일상의 피로를 단번에 해소해 준다. 사우나와 냉탕도 완비되어 있어, 다양한 목욕을 즐길 수 있다.

하치조섬의 웅대한 경치를 즐기고 싶다면 전망이 뛰어난 ‘미하라시노유’를 추천한다.

전경은 노천온천에서, 밤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에는 운이 좋으면 쿠로시오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흑등고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밖에 노송 나무 향기가 좋은 대욕장과 노천탕이 있는 ‘후레이아노유’, 맑은 날이면 멀리 아오가시마(青ヶ島)를 바라볼 수 있는 ‘야스라기노유’, 하치조섬의 서퍼가 자주 찾



우라미가타키 온천에서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태평양을 조망할 수 있는 노천탕 ‘미하라시노유’



하치조후지산의 오히치메구리는 마치 '천공의 길' 같다

는 ‘보라와자와 온천’이나 바닷바람이 상쾌한 ‘아시유 키라 메키’ 등 하치조섬의 온천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어, 관광은 물론, 다이빙과 낚시, 트레킹 후에 천천히 몸을 데우다 보면 여행의 추억이 온몸으로 전해질 것이다.

하치조섬의 색을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

근래 들어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트레킹이다. 서쪽으로는 산정상에서 기슭으로 우아하게 펼쳐지는 하치조후지(八丈富士)산, 동쪽으로는 웅장한 계곡으로 둘러싸인 미하라(三原)산이 우뚝 솟아있다.

하치조후지산은 해발 854.3m의 원추형 복식(複式) 화산으로 도쿄의 여러 섬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다. 중턱에 있는 등산로 입구부터 용암으로 만든 1,280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분화구 주변을 일주할 수 있는 ‘오히치메구리’라 불리는 산책로가 있다.

오히치메구리 산책로는 약 한 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데, 분화구 안쪽의 초록이 가득한 칼데라, 바깥쪽의 웅대한 쿠로시오에 둘러싸인 하치조섬을 조망할 수 있다. 한편, 미하라산은 해발 700.9m로, 10만 년 이상 전에 탄생한 복잡한 지형이 특징이다. 수목이 울창하고 물이 풍부

부한 미하라산에는 많은 강과 폭포가 있어, 자연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는 트레킹 투어도 인기가 있다.

대자연이 형성한 신비로운 ‘포트 홀’

포트 홀(돌개구멍)이란 암반 위로 흐르는 수로에 생긴 원통형 구멍으로, 작은 구멍에 쌓인 돌맹이가 물줄기에 의해 회전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크고 깊게 깎은 것이다. 큰 포트 홀은 지름과 깊이가 1m를 넘는 것도 있으며, 현재는 본류에 1개의 안내판만이 정비되어 있다.

풍요로운 미하라산의 수목에 덮인 이끼, 낙엽, 자연적인 물의 흐름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을 움직이는 운치 있는 포트 홀이 2016년 하치조섬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관심을 끌어,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인기 명소가 되었다. 헤아릴 수 없는 자연의 힘, 우연 속에서 태어난 자연의 조형미가 넘칠 일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가득한 곳이다.

[문의] 하치조섬 관광협회

TEL : +81-4996-2-1377

e-mail : info@hachijo.gr.jp HP : <http://www.hachijo.gr.jp>

(집필 : 하치조섬 관광협회, 협력 : CLAIR, Seoul)

일본 서적 소개

그대 눈동자에 건배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양윤옥 옮김 | 현대문학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쾌감을 선사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매력적인 단편!

유머와 페이스스, 짜릿함이 넘치는 아홉 편의 이야기를 담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집 『그대 눈동자에 건배』. 30여 년의 작가 생활 동안 85번째 단행본인 이 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문예지 등에 발표한 아홉 편의 신작 단편을 담은 것으로,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들며 미스터리 소설의 경계를 넓힌 저자가 지금까지 실험해 온 경험들을 만나볼 수 있다. 미스터리, SF판타지, 블랙 코미디, 심리 서스펜스, 휴먼드라마, 로맨스에 이르기까지 기발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소재가 특히 돋보이는 이번 소설집은 단편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색깔을 띠는 동

시에 한 권의 책으로서도 멋진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다.

12월 일본소설 베스트셀러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	그대 눈동자에 건배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3	너의 해장을 먹고 싶어(노블판)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4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5	가사단장 죽이기. 1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6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민음사
7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민음사
8	너의 해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9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10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나카츠기 타케미	영상출판미디어
11	달의 영유	사토 쇼고	해냄출판사
12	게인의 이름은 유괴	히가시노 게이고	알에이치코리아
13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14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15	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16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시가 아카라	북폴라자
17	저물 듯 저물지 않는	에쿠니 가오리	소담출판사
18	초바키 문구점	오가와 이토	예담
19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	아카츠키 나츠메	디앤씨미디어
20	꿀벌과 천둥	운다 리쿠	현대문학

(제공 : 교보문고)

J-MUSIC NOTES

크랏도네스 kradness

kradness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니코니코 동영상'에서 활동하는 남성 가수다. 일부 콜라보레이션 곡에서는 함께 부른 여성보다 높은 음역대를 무리 없이 소화하고 했다. kradness는 darkness에서 dark를 반대로 뒤집어서 '자신의 노래로 어둠을 밝게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일본은 물론 해외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량하고 폭발적인 고음이 특징이다. DJ와 노래를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무기로 EDM · POP · ROCK 등 폭넓게 활약하고 있다. 음악 이외에도 패션브랜드 '레메라(REMERA)'를 만들어 프로듀서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또, DJ 겸 작곡가로 활동하는 'Camellia'와 유닛 'Quarks(쿠오쿠스)'를 결성하여 그들만의 특별한 플레이스타일로 다듬어가고 있다.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에 출연하여 열광적인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Twitter <https://twitter.com/kradness55>

YouTube <https://www.youtube.com/user/kradness55>

Facebook <https://www.facebook.com/kradness1201/>

Official HP <http://kradness.jp>



1월의 일본영화상영회

겨울방학특선 가족영화

겨울방학을 맞아 1월의 일본영화상영회에서는 당간 미상영작 4편을 포함해서 실사영화 3편, 애니메이션 3편을 소개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관계'를 테마로 한 여러 종류의 가족영화를 상영하는데, 영화에서 소개되는 관계는 참으로 다채롭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반려동물', '나와 가족', '나와 타인' 등 사회 속에 존재하는 많은 관계가 등장한다. 이러한 영화를 통해 우리가 언제나 마주하고 있는 상대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상영 일정	영화 제목
1월 10일(수)	토일렛 トイレット
1월 11일(목)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モモへの手紙
1월 15일(월)	늑대아이 おおかみこどもの雨と雪
1월 16일(화)	하나와 미소시루 はなちゃんのみそ汁
1월 17일(수)	고양이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 猫なんかよんでもこない
1월 18일(목)	괴물의 아이 バケモノの子
1월 19일(금)	토일렛 トイレット
1월 22일(월)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モモへの手紙
1월 23일(화)	늑대아이 おおかみこどもの雨と雪
1월 25일(목)	하나와 미소시루 はなちゃんのみそ汁
1월 26일(금)	고양이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 猫なんかよんでもこない
1월 29일(월)	괴물의 아이 バケモノの子



행운을 부르는 목각 말 인형, 하치노헤에서 만난 ‘아와타우마’

공진규 · 일본문화원 리포터(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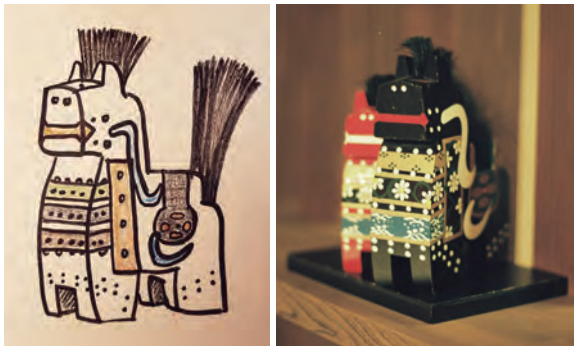
아오모리(青森)에 도착하고는 놀랐다. 그 전까지는 아오모리에 사과만 있는 줄 알았다. 물론 사과도 있었다. 하지만 아오모리가 선사하는 대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상상도 못했다. 혼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쓰가루 해협(津輕海峽)을 사이에 두고 홋카이도(北海道)와 맞닿아 있는 아오모리. 그곳의 진면목은 아름다운 자연이었다. 산림과 계곡 그리고 드넓은 초원의 대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오모리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성 하치노헤항만 · 공항정비사무소)

북쪽의 시모키타 반도(下北半島)부터 이와테현(岩手県)으로 이어지는 남단까지, 아오모리 전역에서 말을 길러왔다. 추위에 강하고 몸통이 뚱뚱하게 생긴, 이 지역의 특별한 말 품종인 간다치메(寒地馬)도 있다. 아오모리 중에서도 말로 유명한 곳이 남동단에 위치한 현의 제2도시인 하치노헤(八戸) 지역이다. 이곳은 예전부터 넓은 초지에 말을 방목해 기르던 산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을 이용한 지역 전통 공예품이 있다.

어릴 때부터 이사를 자주 다녔지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묵묵히 거실의 한 공간을 지키고 있던 것이 있다. 바로 나무로 만든 말 모양의 조각이다. 아버지가 일본 출장을 갔다가 선물로 받아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름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알지 못했다. 나름대로 멋진 생김새 덕분에 집안 장식으로는 꽤나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오모리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는 바로 눈길이 갔다.



그것은 하치노헤시의 지역 전통 공예품인 ‘야와타우마(八幡馬)’라 불리는 목각 말 인형이었다. 무려 700년의 역사가 있으며, 하치노헤시의 맨홀 무늬로도 사용될 정도로 도시의 ‘아이콘’ 같은 존재다. 야와타우마는 미야기현(宮城県)의 기노시타고마(木下駒)와 후쿠시마현(福島県)의 미하루고마(三春駒)와 함께, 말을 이용한 일본의 3대 향토 완구로 불린다.

야와타우마의 생김새를 살펴 보면, 물감으로 눈, 코, 입 등을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말의 몸통 부분에 그려져 있는 하얀 점들이 말의 나이를 상징한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다. 다른 지역의 말 인형과 야와타우마의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가슴과 복부에 멋지게 휘감은 곡선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식 무늬에 치요가미(千代紙)라는 수공용 색종이를 이용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야와타우마가 부모 자식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어 두 마리 말이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야와타우마는 과거 하치노헤 지역에서 결혼 예식을 올릴 때, 신부를 태우고 갔던 말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검은색 말은 부모가, 빨간색 말은 자식이 탔다고 한다. 이제는 결혼 예식도 현대식으로 바뀌어, 아무리 하치노헤 지역이라도 결혼식 때 신부가 말을 타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결혼, 졸업, 출산 등의 경사에 축하 기념품으로 야와타우마를 선물하는데 바로 축하와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야와타우마의 또 다른 유래도 있다. 하치노헤 지역의 구시히키 하치만구(櫛引八幡宮) 신사에서는 참배객들이 기념으로 구입하는 나무 소재의 말 장난감을 팔았다고 한다. 이 신사가 위치한 지역 이름이 야와타(八幡)라는 점에서, 야와타 신사에서 팔리는 말 즉 야와타우마가 되었다고 한다.

유래야 어찌 되었든지, 하치노헤시를 방문하게 되면 관광지 주변에서 야와타우마를 종종 만나볼 수 있다. 또 여러 공방에서는 야와타우마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으며, 기념품 가게에서는 멋진 야와타우마를 구매할 수 있다. 평균 판매가격은 7~8cm 이하의 작은 것들은 2~3천 엔, 크기가 큰 것이나 명인의 수공예품인 경우는 수만 엔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현대적이고 귀여운 문양을 그려 캐릭터화한 야와타우마도 만들어지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무사히 지나고, 2018년 새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다. 신년에는 경사가 넘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인에게 행운의 말 인형, 야와타우마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하루하루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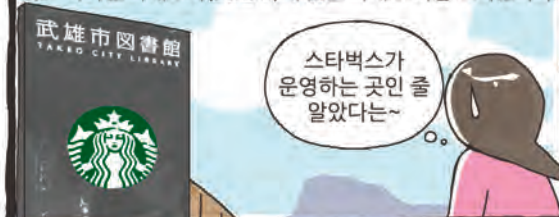
대형 쇼핑을 한가운데, 대형 서점이 아닌 대규모 공공 도서관. 도서관은 근엄하게 책만 보는 곳이라는 편견을 과감히 깬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으로 만남의 장소 및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익성을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곳은 책뿐 아니라 주변에 잡화 및 생활소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기에 충분할 듯 싶다. 어쩌면 이러한 집객(集客)효과를 노린 것은 아닐까?



이러한 오픈 라이브러리의 모델이 되어 준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사가현 다케오시(武雄市)에 있는 다케오 시립 도서관이다.

의문을 갖고 도서관 문을 들어서서는 순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오픈 카페가 있고 도서 전시 방법도 획기적이어서 온종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도 전혀 지루할 틈 없으니 이러한 이상적인 도서관이 또 있을까?



다케오시는 총인구 5만명의 소박한 지방 소도시지만 다케오 시립도서관은 어느새 연간 100만 명의 방문자가 찾는 인기 도서관이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다. 기존의 도서관을 TSUTAYA가 경영을 맡게 되면서 2013년 리뉴얼 개장하여 대출의 대상 또한 지역민 뿐 아니라 일본 국내 거주자 모두에게 확대했다. 게다가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기획 전시실을 제외한 도서관의 휴관일을 없애는 등 과감한 시도로 2015년에는 도서관 일본 최장 개관일수를 기록했다(366일).



*TSUTAYA(Culture Convenience Club) - 음반, 영상, 서적 렌탈 및 판매 체인점.

다이칸야마(代官山)의 TSUTAYA 서점(蔦屋書店)을 모델로 인테리어를 꾸미고 TSUTAYA의 전자시스템까지 도입해 신속히 도서를 정리하고 대여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다케오까지 와서 도서관만 다녀가면 스텝핏!, 규슈 올레 다케오 코스까지 함께 걸으면 그웨잇!

